

투데이 칼럼

2024년 새해 국제 전망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기습이 접화한 '가자 전쟁'도 여전하다. 이스라엘의 힘은 압도적이다.

하마스는 가자지구에서 축출될 것이다. 그러나 그 끝은 진짜 끝이 아니다. 중추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두 전쟁은 다극(多極) 시대의 징후다. 제2차 세계대전 후 80여년간 지속되던 평화시대는 끝났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30년 넘게 지속되던 미국 중심 체제도 끝났다. 미국은 예전 미국이 아니다. 냉전기 소련 대신 미국에 맞서는 상대는 이제 중국이다. 패권국과 도전국 간 구조적 긴장이 시작됐다.

냉전은 끝났지만 핵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이 무력전쟁을 벌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 유력한 도화선은 대만이다. 미국이 대선을 치르는 2024년에는 한반도 긴장도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 포로그 램은 진전될 것이다. 지난해 12월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실패한 실험이다. 전에는 강대국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국제 환경이 형성됐다.

그러나 이제 미국의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



정복규  
논설위원

할 수도 없다. 미국 편에 속하지 않던 다른 진영의 힘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중국만이 아니다. 러시아가 그렇고, 이란과 북한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말을 안 들은 대가로 중국과의 무역도 막았다.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는 2년째 전쟁 중이다. 다행히 나라를 잃지는 않았다. 하지만 2014년 크림반도에 이어 동쪽 땅을 또 빼앗겼다. 대만격에 실패하고 내분의 겨울을 맞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선진 북반구의 관심도 개전 첫해만은 못하다. 소모전의 출구를 찾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2년 11월부터 우크라이나의 통제선(사실상의 국경)은 어느 쪽으로도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하마스는 타협 불가능한 테러리스트이다. 소탕 자체가 쉽지 않은 목표다.

지금처럼 가자를 파괴하는 식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 가자에 살고 있는 200만 명을 더 멀어지게 만들 뿐이다.

1982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를 박멸하려 레바논을 침공해 넉 달 가까이 점령했다. 당시 이스라엘은 레바논 점령이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철수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새로운 반(反)이스라엘 이슬람 시아파 무장단체인 헤즈볼라가 부상했다. 이스라엘은 모든 전선에서 거의 해결하기 불가능한 도전적 안보 문제에 직면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골라고원과 서안, 레바논이나 요르단, 궁극적으로 이란과의 갈등으로 전이되거나 접화할 가능성이 있다.

모든 반 이스라엘 세력이 참전하게 된다면 미국이 그 전면전에 연루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라크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다.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다. 그러나 이미 유일 패권국이 아니다.

라이벌 중국이 계속 강력해지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나 대만 같은 첨예한 갈등 이슈를 놓고는 두 정상 모두 물러서지 않는다.

핵전쟁은 스스로 파괴되지 않고는 상대방을 파괴할 수 없다. 우발적 사고나 제3자에 의한 사건이 전쟁으로 돌아날 수 있다. 1914년 오스트리아 황태자 암살이 1차 세계대전의 불씨가 됐다.

남중국해나 동중국해에서의 양측 작전을 둘러싼 충돌, 대만 독립 선언 등이 악순환을 촉발할지 모른다. 향후 10~20년간 미중 간 전쟁의 위험이 크다. 대만은 미중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발화점이다.

중국은 대만이 중국에 완전히 통합돼야 하며 중국 규칙에 의해 통치돼야 한다고 믿는다. 반면 미국은 시장주의 민주 국가인 대만의 번영을 바란다.

결국 상대방이 물러서기를 바라며 무모하게 돌진하는 '치킨 게임'이 벌어질 수 있다. 미중 충돌 가능성은 확대일로다. 한반도 긴장도 고조될 공산이 크다.

사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망

2024년 새해, 전라북도도는 어떤 모습일지 도민들의 관심이 크다. 특별자치도 시대에는 무엇이 바뀌는지, 특별자치도의 과정은 무엇인지에 촉각이 곤두선다. 전라북도도는 오는 18일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한다.

다수의 권한을 정부로부터 이양 받아 자주 행정, 자주 재원을 꾀하고 있다. 도민들은 농업, 바이오, 식품과 관련된 많은 인허가 권한을, 그리고 문화와 관광에 관련된 여러 중앙정부의 권한도 이양 받고 싶어 한다.

이에 앞서 128년 동안 사용해 온 전라북도라는 이름은 지워지고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명칭이 들어선다. 주민등록번호도 로명 등 250억 건의 방대한 코드가 한꺼번에 변경된다.

1월 17일 저녁 6시에 일괄적으로 대규모 시스템 전환이 이뤄진다. 농생명과학문화관광, 고령친화산업, 외국인 특별고용 등 전북의 5대 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것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관련 권한을 정부로부터 이양 받을 수 있는 131개 조문에, 333건의 특례를 담은 전북특별법이 최근 통과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주와 세종처럼 국가 예산의 일부를 자율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 특례를 전북은 담지 못했다.

제주도의 경우 매년 전체 예산의 3%를 자율 재원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재정 특례가 담겨있다. 세종시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라는 국가공기업을 세워 면세점 운영 등을 통해 상당한 자율 재원을 확보해 왔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꼴찌인 전북은 자율 재원 마련에 실패한 것이다.

특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국가 예산이 감축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새로운 전북, 그리고 내실 있는 특자도가 되기를 바란다.

남북통일운동 송년 세미나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이 지난 12월 28일 서울 용산구 청파동 통일빌딩에서 2023 송년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민족의 분단은 세계적 갈등과 전쟁의 축소제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세계평화와 인류공동체 건설의 필연적 과제이다.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은 40여년 전 창설했다. 국민연합은 국내외적으로 활동해 하면서 여러 분야 지도자를 초청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새 길을 열어가고 있다.

특히 자진거로 대한민국 국토를 종주하는 '피스로드 통일대장정' 행사는 글로벌 통일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매년 세계 160개국 대표들이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고 있다.

요즘 한반도는 고도화된 군비경쟁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력을 바탕으로 군사강국을 외치고 있다. 대한민국 핵보유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의 한미동맹 및 확장억

제 강화 등 노력에 대해 긍정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대 모든 외교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 왔다. 북한이 중·러와 밀착될수록 한반도 통일은 요원하다. 김정은 정권을 중·러 세력권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북한을 친한, 친미 국가로 만들어야 통일이 가능하다.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말 시점에서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분단의 원인과 치유하는 길을 어떻게 밝힐 것인가 하는 문제부터 분석해야 한다. 위기와 기회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국민들에게 각인을 시켜 나가야 할 때이다.

20세기 큰 사건 중의 하나는 동서 냉전의 종식이다. 미국의 워싱턴타임스를 통한 문선명 총재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가능했다.

국민연합을 기반으로 100만 통일 준비국민위원을 육성해 통일을 실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기를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말레이 왕궁 축제, 영혼들과 송별 준비하는 사람들



지난 11일(현지시각) 말레이시아 말라카에서 전통 왕궁(왕선) 축제가 열려 사람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영혼(선한 형제)들이 승선한 왕궁선을 불에 태울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축제는 선한 형제들이 승선한 왕궁선을 불에 태워 영혼들을 더 좋은 곳으로 보내는 송별식으로 마무리된다. 왕궁 축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



지난 13일 대만 총통 선거에서 독립 성향 집권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했다. 라이칭더 총통 당선인은 이날 대만 타이베이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